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2

“멋진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열기

소그룹에는 늘 늦게 오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직장 업무와 육아가 겹쳐 늘 지쳐 있었고, 그 피로 속에서 매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가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늦게 모임에 도착한 날, 문을 열자마자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테이블 옆에 놓여 있는 빈 의자와 그 위에 놓여있는 자신의 이름표 하나였습니다. 모임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너를 위해 이 자리를 비워 두었어. 우리가 네 삶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앉아 있어 줄 수는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공동체에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었고,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품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 의자 하나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품고 서로의 삶에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공동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 소그룹 모임에 가장 가기 싫을 때는 언제인가요?

📖 소그룹 공동체에서 당신을 가장 깊이 위로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나는 새로운 만남을 대체로 기대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는 편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누군가를 깊이 만나는 데에 나를 막고 있는 두려움이나 상처는 무엇인가요?

- ☞ 최근에 누군가와 만남이 내 마음에 위로나 기쁨을 주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관계가 크게 달라진 사람이 있나요? 무엇이 그 관계를 변화 시키게 했나요?
- ☞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만남'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람을 '때에 따라' 보내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 지금 공동체에서의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12:3-8

3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4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5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7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8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 ☞ 바울은 3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나요?

- ☞ 4-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나요?

 6-8절에 나오는 은사들은 무엇이고, 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5절에 “우리는 서로 지체이다”는 말은 실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서로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바울이 강조하는 은사 사용의 공통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틈’이 되어 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낙심한 친구를 보았다면 그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대화를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의 일정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귀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그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금식까지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이를 만나면 그 짐을 함께 들어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란 바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는 대신 품어 주고, 서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 주며,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를 세워 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

실은, 공동체가 단순한 관계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증거임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언제나 따뜻한 만남이 있고, 진심 어린 위로가 있고, 깊은 나눔과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깊이 만나기 위해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식사, 기도파트너, 방문 등)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열어야 하거나 용기를 내야 하는 '만남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우리 소그룹(또는 공동체)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건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기도